

2020년 1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속 상승폭 확대 트럼프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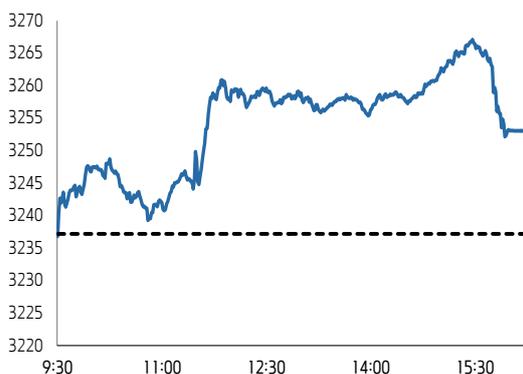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이란과 미국 발표, 개별 기업 재료

미 증시는 트럼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이 아닌 경제 제재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특히 투자심리가 안정을 찾자 금융주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다만, 이란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유지. 한편, 장 마감을 앞두고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 일부 반납하며 마감(다우 +0.56%, 나스닥 +0.67%, S&P500 +0.49%, 러셀 2000 +0.32%)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 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군기지 공격 후 “자위적인 조치일 뿐 긴장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자 안정을 찾는 경향. 물론 혁명수비대는 “이제 겨우 뺨 한대 때린 정도다” 라고 발표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중동발 리스크의 완전 해소는 아니라는 점은 부담.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중동발 리스크 완화로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확대. 더불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이런 가운데 애플(+1.61%)이 연말 쇼핑시즌 앱스토어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애플 뉴스 사용자가 1 억명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이고 MS(+1.59%)도 수익 증가를 기반으로 목표주가가 상향조정 되자 상승하며 미 증시 강세를 이끔. 다만, S&P500 기준 12m Fwd PER 이 18 배를 넘어서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폭 확대는 되지 못하고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보임. 더 나아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며 에너지 업종 하락을 부추겼으며, 금융주와 항공, 소비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를 보임. 향후 금융시장은 10 일 미국 고용보고서, 14 일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 15 일 미-중 무역협상 서명 등 주요 이벤트 결과에 따라 차익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51.31	-1.11	홍콩항셱	28,087.92	-0.83
KOSDAQ	640.94	-3.39	영국	7,574.93	+0.01
DOW	28,745.09	+0.56	독일	13,320.18	+0.71
NASDAQ	9,129.24	+0.67	프랑스	6,031.00	+0.31
S&P 500	3,253.05	+0.49	스페인	9,591.40	+0.12
상하이종합	3,066.89	-1.22	그리스	914.17	-1.14
일본	23,204.76	-1.57	이탈리아	23,832.02	+0.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상승 Vs. 에너지 업종 하락

애플(+1.61%)은 애플 뉴스 사용자가 1억명을 넘는 등 급증하고 앱스토어 매출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1.59%)는 모건스탠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마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157달러→189달러)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JP모건(+0.78%), BOA(+1.01%), 웰스파고(+0.28%)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가 상승하자 강세를 보였다. 맥도날드(+1.62%)는 식물성 고기 이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상승했으나 비욘드미트(-2.87%)는 경쟁 심화를 이유로 하락했다. 메이시스(+2.43%)는 CEO가 판매감소가 이전보다 덜 나쁘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월그린부츠(-5.84%)는 핵심 사업인 약품 판매 총이익이 4.9%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코노코필립스(-2.32%), EOG리소스(-2.18%) 등 세일오일 기업들과 솔룸베르거(-2.95%), 할리버튼(-2.51%) 등 원유 서비스업종은 중동리스크 완화 여파로 유가가 급락하자 하락했다. 반면, 델타항공(+2.15%), 아메리카에어라인(+2.28%) 등 항공주와 UPS(+0.54%), 페덱스(+1.51%) 등 물류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1.29%) 등 반도체 업종은 차익매물이 출회되었으나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데 힘입어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80%	대형 가치주 ETF(IVE)	+0.26%
에너지섹터 ETF(OIH)	-3.27%	중형 가치주 ETF(IWS)	+0.04%
소매업체 ETF(XRT)	+0.20%	소형 가치주 ETF(IWN)	+0.05%
금융섹터 ETF(XLF)	+0.66%	대형 성장주 ETF(VUG)	+0.79%
기술섹터 ETF(XLK)	+1.07%	중형 성장주 ETF(IWP)	+0.4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2%	소형 성장주 ETF(IWO)	+0.59%
인터넷업체 ETF(FDN)	+0.90%	배당주 ETF(DVY)	+0.53%
리츠업체 ETF(XLRE)	+0.5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9%
주택건설업체 ETF(XHB)	+0.9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1%
바이오섹터 ETF(IBB)	+0.90%	미국 국채 ETF(IEF)	-0.23%
헬스케어 ETF(XLV)	+0.65%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49%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0.17%	Long/short ETF(BTAL)	-0.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3.36	-1.74%	-0.68%	+3.78%
소재	374.25	+0.49%	-3.01%	-0.15%
산업재	699.78	+0.23%	+1.77%	+3.08%
경기소비재	994.37	+0.15%	+0.82%	+4.24%
필수소비재	640.26	+0.45%	-1.04%	-0.10%
헬스케어	1,192.03	+0.64%	+0.32%	+3.55%
금융	509.56	+0.54%	-0.36%	+1.69%
IT	1,641.38	+1.03%	+1.88%	+7.32%
커뮤니케이션	186.44	+0.69%	+2.64%	+4.18%
유틸리티	324.33	-0.00%	-1.23%	+2.13%
부동산	453.36	-1.74%	-0.68%	+3.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후 매물 소화과정 이어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583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3.35pt 상승한 293.5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2.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으로 장중 한 때 1.74% 급락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이 방위적인 조치일 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자 0.61% 하락까지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다.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표를 기다리며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1.11% 하락으로 마감 했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가 트럼프 발언 직후 상승폭을 확대 했으나, 오후에는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그 소화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전일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 실적과 마이크론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 오늘은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보험권 등락에 그치는 등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 나아가 미 증시 막판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공격이 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12 월 미국 ADP 는 민간고용이 20 만 2 천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 월 이후 최고 기록이었으며, 전월(12.4 만건)은 물론 예상(15.7 만건)을 크게 상회한 결과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자 WTI 기준 60 달러를 하회하는 등 급락했다. 더불어 미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지난주 대비 12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도 하락요인이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과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후 이란과의 전쟁 우려가 악화되자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악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중동리스크가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도 상승 요인중 하나였다. 반면, 독일 11월 공장주문이 예상보다 부진한 전월 대비 1.3% 둔화된 점, 중도발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한편, 1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2배)을 소폭 상회한 2.45배를 기록한 점도 상승폭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과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혼재되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7% 철근은 0.17%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61	-4.93	-2.37	Dollar Index	97.311	+0.32	+0.90
브렌트유	65.44	-4.15	-0.85	EUR/USD	1.1109	-0.39	-0.92
금	1,560.20	-0.90	+2.44	USD/JPY	109.12	+0.63	+0.33
은	18.167	-1.23	+1.37	GBP/USD	1.3095	-0.24	-1.20
알루미늄	1,800.00	-0.88	-0.55	USD/CHF	0.9737	+0.36	+0.69
전기동	6,178.00	+0.47	+0.06	AUD/USD	0.6868	-0.03	-2.12
아연	2,403.00	+2.43	+5.77	USD/CAD	1.3039	+0.27	+0.40
옥수수	384.25	-0.07	-0.90	USD/BRL	4.0638	-0.05	+0.97
밀	552.75	+0.45	-1.07	USD/CNH	6.9367	-0.09	-0.37
대두	947.25	+0.34	-0.86	USD/KRW	1170.80	+0.38	+1.25
커피	119.15	-2.66	-8.13	USD/KRW NDF1M	1161.55	-0.48	+0.6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55	+3.68	-6.30	스페인	0.430	+3.50	-3.30
한국	1.635	+0.20	-3.70	포르투갈	0.388	+2.60	-4.50
일본	-0.002	+0.30	+0.90	그리스	1.381	-0.40	-5.00
독일	-0.207	+7.80	-2.10	이탈리아	1.412	+3.80	+0.30